

‘생사해탈’ 본래의 내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



대연 거사는 앉아서 졸다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기왓장을 때리는 빗소리가 꿈결처럼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가 보니 비의 촉감이 가냘프게 전해지는 가랑비였다. 수은등 불빛도 축축하게 느껴졌다. 가랑비가 부나비처럼 흰 불빛에 달려들고 있었다. 대연 거사에게는 답답지 않은 비였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면 원각 스님과 함께 중봉암 터를 가기로 한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내리는 비의 기세는 우산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떠난 집과 도예공방 생각이 났다. 늦가을에 가마 불을 때려고 장작더미를 햇볕에 말려두고 왔던 것이다. 가을비를 맞으면 잘 말랐던 장작이 급세 찾아버리므로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공방 주변에 천막을 쳐줄 이웃도 없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공방 일은 아예 잊어버리기로 했다. 원당암에 와 있으니 해암 스님만 생각하고 집중하기로 했다.

날이 밝아지면서 밥상을 오가는 보살들이 더 분주해지고 있었다. 비가 그쳐 가는지 우산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연 거사는 해인사 쪽으로 산책을 나섰다. 새벽에 비가 내린 탓인지 가을이 더 깊어진 느낌이었다. 절 마당에도 냉기가 일렁였다. 어께가 움츠러들고 일교차 때문에 기침이 나오려고 했다. 원각 스님이 계시는 연화실은 벌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빗자루를 든 젊은 시자가 보였다.

시자가 대연 거사를 발견하고는 켜결음으로 왔다.

남긴 글씨이기도 했다. 대연 거사는 ‘생사해탈’의 의미를 곱씹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생(生)이라 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死)라고 한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일기생사(一期生死)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일기생사보다 찰나생사의 해탈에 더 의미를 두고 정진한다.’

찰나생사(刹那生死)란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찰나생사의 생멸은 찰나에서 찰나까지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한 생각 자체가 무명번뇌이고, 그 무명번뇌를 계속 반복하면서 산다. 이러한 상태를 선가에서는 윤회라고 한다. 그러나 선가에서의 생사해탈은 순간순간 무명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내 마음, 즉 청정한 마음으로 깨어있음을 뜻한다. 죽음을 뛰어넘어 불사조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처님도 죽었고, 달마조사도 죽었고, 육조 혜능대사도 죽었던 것이다.’

해암 스님도 원당암을 오르내리면서 이 무생교를 건넜으리라. 대연 거사는 스스로 무생교에서 원당암까지의 산길을 ‘해암 스님의 길’이라고 명명했다. 원각 스님에게 건의해 조그만 이정표라도 세우고 싶었다. 만약 원각 스님이 허락한다면 이정표를 자신의 도예작품으로 만들어 보시할 용의도 있었다.

일주문 주변에는 등산객들이 줄을 지어 장바와 인원을 점검하고 있었다. 가야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그림 · 최문정

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용담선원 밑 주차장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걸었다. 좁은 산길은 벌써부터 가야산 정상에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로 붐볐다.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30분쯤 걸다가 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을 건너 오른쪽 산자락으로 들어섰다.

“중봉암을 절거한 지 30년 만에 찾아가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산자락으로 들어서자 산길은 낙엽에 덮여 희미했다. 흐릿한 산길마저 잡목이 우거져 사라지곤 했다.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숲속이라 큰 나무들이 우산처럼 비를 가려 주었지만 가시덤불들이 산행을 방해했다. 산자락에는 유난히 역센 산죽이 지천이었다. 산죽에 묻은 빗물이 바닷가람이에 옮겨 붙었다.

대연 거사는 앞서 가는 원각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무슨 화두를 드십니까?”

원각 스님은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었는지 웃기만 하다가 산자락 너머 가파른 곳에 산길이 보이자 대답했다.

“성철 방장스님께 삼천배 하고 ‘마삼근’ 화두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뭇고’로 바꾸었습니다. 화두는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근본 바탕에서 찾게 하는 것이지요.”

원각 스님은 생뚱맞은 대연 거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대답이 허전했는지 몇 걸음 앞서 걸다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내부보다는 자신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재선이 없으면 재산을 벌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지위가 낮으면 높은 데로 가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재선이 더 많이 모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진다 해도 근본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만족감이 생기더라도 또 다른 욕망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선은 자성을 깨닫게 해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나와 남이,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닫게 해 집착과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돈을 벌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심의 근본 바탕에서 생활하면

결집 없는 자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근본 바탕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래심은 무엇입니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성이니, 부처성품이니, 마음자리니 하고 표현하지만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선도 약도 붙을 수 없는 근본 성품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생활해야 활발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서 생활해야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벗어나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 절대자와 나, 주종관계나 상대가 있는 곳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하지 마십시오. 확연히 깨쳐야 합니다. 칼로 목을 치더라도 생사라는 상대를 벗어나 있기에 두려움이 없지요. 안팎이 명철하고 확연해지면 미혹이 사라집니다.”

생사가 없는 것을 알고
생사가 없는 것을 체달하고
생사가 없는 것을 쓴다.
知無生死
體無生死
用無生死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쓸 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되면 지혜는 저절로 분명해집니다. ‘진공묘유’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깨달아 수용하면 활발발해됩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의 얘기에 빠졌다. 심오한 경계를 쉽게 풀어내는 스님의 법문에 의해 중봉암터로 간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원각 스님의 얘기에 심취했다. 원각 스님이 가던 발걸음을 돌린 뒤에야 대연 거사는 자신이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쪽 분지에 중봉암이 있었는데 그 사이 숲이 너무 많이 울창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사라진 것을
아름답게
추억하라
아쉬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해간다
”

“이 산길이 맞습니까?”

“이 길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을 약초꾼 노인들도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분들을 데리고 오면 금방 찾을 수 있겠는데...”

가야산 정상에 얽혀 있던 비구름이 어느새 내려와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산행을 거부하는 듯 굵은 빗방울을 떨어뜨렸다.

“스님, 다음에 오시죠.”

“한 번은 원웅스님과 저수지 원편으로 올라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중봉암터는 꽤 넓었습니다. 도립스님이 넓은 밭에 약초를 많이 재배했으니까요.”

원각 스님은 아쉬운 듯 계속 사라진 산길을 찾았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중봉암터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중봉암터는 자연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버린 것 같았다. 해암 스님이 동지를 틈 가야산의 첫 토굴, 광명화보실이 해암 스님을 시봉하기 위해 올랐던 중봉암. 이제 중봉암은 가야산에 없었다. 그 터마저도 찾을 길이 없었다.

“스님, 중봉암은 이제 스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허허허.”

대연 거사도 마찬가지였다.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산속을 헤매는 동안 중봉암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듯했다.

“스님, 중봉암 인법당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대연 거사는 산길을 내려오면서 홀연히 어둔 마음 속에 불이 하나 켜진 듯한 느낌이 사로잡혔다. 중봉암터를 찾지 못했는데도 조금도 허전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중봉암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중봉암으로 가는 산길을 지워버린 낙엽조차도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법하는 부처님이었다. 낙엽이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을 하고 있었다.

‘사라진 것을 아름답게 추억하라. 아쉬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해간다. 변하지 않으려고 상(相)을 내는 것이 바로 집착이다!’

<계속>

대연 거사는 무생교 다리 위에서 해암 스님 떠올려 중봉암터 가는 길 잇을 만큼 원각 스님 법문에 심취 산길 지워버린 낙엽조차 제행무상 설법하는 부처

시자는 갖 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한 듯 얼굴이 옛때 보였다.

“어디 가십니까. 곧 큰스님이 찾으실 텐데요.”
“산책 좀 하려고요.”

“늦지는 마십시오. 큰스님께서 아침공양 하시고 바로 중봉암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아침공양을 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해인사까지는 내려갔다 오려고 했다. 산길은 가랑비에 젖어 걷기에 안정맞았었다. 먼지가 씻긴 단풍도 한층 더 선명했다. 서늘한 기운은 의식을 더 맑게 헹구 주었다. 대연 거사는 무생교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문득 의식의 저편에서 해암 스님이 떠올랐다.

무생교(無生橋).

무생이란 생사해탈해 윤회하지 않는 삶을 뜻했다. 윤회의 고통이 사라진 삶이 무생이니 무생교는 생사해탈의 서원이 깃든 다리였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다리였는데, 해암 스님의 흔적을 찾아 나선 지금의 대연 거사는 다리가름이 자못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생사해탈이란 무엇인가. 해암 스님이 가장 많이

모인 등산모임 같은데, 그들의 옷차림도 만산홍예처럼 울긋불긋했다. 대연 거사는 등산객들의 소란스러움을 피해 해인사 선방인 소림원 밑의 한적한 산길을 이용해 지족암까지 갔다가 다시 무생교 쪽으로 되돌아왔다.

원당암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연화실 시자가 말했다.

“큰스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방에 가방을 두었는데 괜찮겠지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연 거사는 묵었던 방의 방문을 잠그지 않고 바로 연화실로 갔다. 시자스님 말대로 원각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실 마루에서 서성이던 원각 스님이 대연 거사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주었다.

“차를 한 잔 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스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중봉암으로 갑시다. 차는 나중에 마시기로 하고.”
가야산 봉우리에는 비구름 몇 가닥이 얽혀 있었다. 가야산 너머로 물러선 가을비가 다시 올 수 있는 징조였다. 그래도 원각 스님은 우산을 들지 않고 나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함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몸을 비워 내두려야
여기가 내려라도 속지를 말지아라.
본뜻이 나타날수록 그해가 도리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